

롯데칠성, 수용성 접착제로 PET병 라벨링

롯데칠성음료(대표 이재혁)는 2013년부터 생수 <아이스 8.0> 2리터 PET제품에 라벨을 붙일 때 물에 완전히 녹는 접착제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12월26일 발표했다.

수용성 접착제를 사용하면 빈 병에서 라벨이 더 잘 제거돼 재활용이 한결 쉬워진다고 롯데칠성은 밝혔다.

롯데칠성 관계자는 “국내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다양한 생산제품에 수용성 접착제를 사용하도록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롯데칠성은 12월4일 환경부와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의 <포장재 재질·구조 사전평가제도>에서 자원순환형 포장제품으로 인증받기도 했다.

<화학저널 2012/12/26>